

성찬

²⁶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²⁸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(마26:26-28)

시작 변일국 목사

주님이 생전 남기신 두 가지 예전은 침례와 성찬입니다. 주님의 모든 활동은 세 가지, 곧 주님과 천국, 그리고 교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,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. 이 두 예전은 바로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, 침례가 그 첫 번째로,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, 성찬은 그 두 번째,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천국의 대기는 주님의 신성(神性, *the Devine*)입니다. 생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신성이 형성되어야 사후 우리는 천국의 대기를 호흡할 수 있어 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. 평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신성을 형성하는 걸 ‘주님을 닮는다’ 하는데, 구체적으로는 주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, 곧 체어리티(*charity*)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.

주님의 신성은 선과 진리로 되어 있으며, 그래서 빵으로는 주님의 선을, 포도주로는 주님의 진리를 각각 상징하였고, 또한 각각 주님의 삶과 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. 아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

찬송 찬230, ‘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’, 1, 2절

성찬 빵, 포도주

찬송 찬230, ‘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’, 3, 4절

기도 변일국 목사